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1. 4. 30.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개발계획총괄과
담당	과장 김병용, 개발계획팀장 장철배, 담당 최진우(032-453-7823)

## “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·청신호 켜졌다”

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30일 최종 선정  
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협조 통해 필요성·시급성 등 적극 설명 결과  
 인천신항 물류수송 등 강화 기대…2024년 착공·2026년 완공 목표

-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청장 이원재)은 이 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.
- 인천경제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해양수산부,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,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.
- ‘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(2014년, 산업통상자원부)’, ‘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(2020년, 해양수산부)’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타당성평가 용역, 올해 2월 해양수산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.

- IFEZ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 사업은 총 연장 4.3km(지하차도 구조물 연장 3.0km), 폭 20m,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천9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- 인천신항 물류수송망 및 교통체계 구축을 크게 강화할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△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 체계 마련 △송도 11공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미관 확보 △인천신항의 운송·물류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감축 △대형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개선 등이 기대된다.
-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해양수산부,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및 통과, 국회의 예산 편성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 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협조를 해 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해양수산부,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구축,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